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주한인도대사관
Embassy of India
Seoul, Republic of Korea

보도

2024.9.9.(월) 조간

배포

2024.9.6.(금)

담당부서

국제업무국
금융중심지지원팀

책임자

국 장

박시문

02-3145-7890

담당자

팀 장

유명신

02-3145-7901

주한인도대사관

책임자

부대사

니시 칸트 싱

02-790-5488

담당자

서기관

산자나 아라

02-790-4257

금융감독원, 주한 인도대사관 및 금융협회와 「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」 개최

I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4.9.6.(금) 주한 인도대사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「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」를 개최하였음
- 동 설명회에는 인도 재무부, 중앙은행 등이 참석하여 인도의 금융 인허가 제도 및 투자환경 전망 등을 소개하는 한편, 인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금융회사와 질의·응답하는 시간을 가짐

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 개요

- ▶ 주최 : 금융감독원, 주한 인도대사관,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
- ▶ 일시/장소 : 2024.9.6.(금) 9:50~11:50 /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
- ▶ 주요 참석자
 - (금융감독원) 이복현 원장, 국제업무국장 등
 - (인도) 주한 인도 대사, 인도 재무부 비서관, 인도중앙은행(RBI) 본부장, 인도증권거래위원회(SEBI) 위원, 인도국립투자인프라펀드(NIIF) CIO 등
 - (금융회사) 최고경영자(CEO)·해외사업 담당 임원 등
 - (금융협회) 은행연합회장, 금융투자협회장, 생·손보협회장, 여신금융협회장

II 주요 내용

-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높은 인도*의 금융당국을 초청하여, 인도 금융시장 및 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* 인도의 경제·금융 및 국내 금융회사 진출 현황 (☞ 참고)

- 동 설명회에는 국내 금융회사 CEO 및 해외사업 담당 임원 등 50여개사, 140여명이 참석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등 최근 인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음

* ex) 은행 지점 개설을 위한 인허가 단계 중 주요 점검 필요사항 등

1 개회사 등 모두발언

- **이복현 금융감독원장**은 개회사에서,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
 -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과 시너지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금융시장의 균형 있고 견고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
- **조용병 은행연합회장**은 환영사에서, 인도의 급성장하는 모바일 뱅킹 시장이 한국 금융산업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임을 언급하면서
 - 금융협회 모두가 회원사들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
- **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**는 축사에서,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도의 디지털·IT산업 등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양국간 금융산업에서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하였음

2 발표 및 논의내용

- **(인도 금융당국 발표)** 이후 인도 금융당국 및 국영펀드의 인도 금융 시장 진출 및 금융산업·투자 환경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짐
- **[인도 재무부]** 재무부의 모하메드 아슈라프 비서관은 인도 금융 산업 현황 및 인허가 제도 전반을 소개
 - 은행, 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별 성장률 및 외국계 금융기관 진입 현황을 보여주고 인도 현지점포 개설, 지분투자 등 인도 시장 진입 경로별 특징 및 요건 등을 설명
- **[인도 중앙은행(RBI)]** 마노란잔 파디 본부장은 인도 은행 인허가 승인 절차 및 감독체계에 대해서 소개
 -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(여신전문회사 등)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, 자금요건 등 진입기준과 함께 인허가 절차와 소요시간 등을 안내
- **[인도 증권거래위원회(SEBI)]** 루치 초제르 위원은 인도에 대한 외국인의 주요 투자 경로인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(FPI; Foreign Portfolio Investment) 관련 세부 등록 절차 및 규제를 소개
 - 아울러 인도 금융당국이 공시완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과제 공유
- **[인도 국립투자인프라펀드(NIIF)]** 라지브 다르 CIO는 인도 인프라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, 최근 투자유치 사례 등을 소개
 - 인도는 목표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관리되면서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, 부채규모가 낮고 자본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
 - 국가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,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시장임을 피력

□ **(금융회사와의 논의)**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는 인도 금융당국과 인허가·규제 등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하였음

- 금융회사 등 참석자들은 금융업 진출 요건, 세금 문제, 인도 금융 시장 및 기업실적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방법 등을 포함하여
 - 그간 정보취득에 제약이 있던 인도 금융산업·규제 등에 대해 문의하고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음

< 금융회사 관심사항 (예시) >

- ▶ A사: 인도에 既진출한 은행이 인도에 신규 지점을 추가 개설할 경우, 인허가 승인까지의 예상 소요기간 등 예측 가능성 제고
- ▶ B사: 한국 거주자의 인도주식 직접투자시 배당, 매매차익 등 발생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여부
 - * 한국 거주자의 인도주식 투자 관련 한국-인도간 조세협약(KI Treaty) 적용여부 등
- ▶ C사: 인도 금융시장 및 기업 실적 등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 취득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방법 및 출처 등

설명회 세부 일정

	시 간	내 용	비 고
모 두 발 언	9:50 ~ 9:55	개 회 사	금융감독원장
	9:55 ~ 10:00	환 영 사	전국은행연합회장
	10:00 ~ 10:05	축 사	주한 인도대사
주 제 발 표	10:10~10:25	(발표1) 인도 금융산업 개황 및 인허가 제도	인도 재무부
	10:25~10:45	(발표2) 인도 은행업 인허가 및 유의사항	인도중앙은행(RBI)
	11:05~11:20	(발표3) 인도의 외국인 금융투자 현황 등	인도 증권거래 위원회(SEBI)
	11:20~11:35	(발표4) 인도 인프라산업 투자환경 및 전망	인도 국립투자 인프라펀드(NIIF)
QA	11:35~11:50	금융회사 질의·응답	인도 금융당국 국내 금융회사

Ⅲ 평가 및 향후계획

- **(평가)** 참석 금융회사 등은 인도 진출시 금융업 인허가, 투자 등에 대한 인도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으며,
 - 특히 인도 금융당국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추가적인 소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
- **(향후 계획)**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인도 감독당국 등과 협력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,
 - 진출 수요가 많은 여타 신흥국 등에 대해서도 현지 금융감독당국, 주한 대사관 등과 협력·소통 강화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인허가 및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

<별첨>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개회사

관련 기관	전국은행연합회 (미래혁신부)	책임자 담당자	부장 과장	김윤진 (02-3705-5326) 윤태윤 (02-3705-5254)
	금융투자협회 (국제업무부)	책임자 담당자	부장 차장	윤성환 (02-2003-9280) 류정선 (02-2003-9285)
	생명보험협회 (신성장지원부)	책임자 담당자	부장 팀장	양재섭 (02-2262-6506) 김우열 (02-2262-6663)
	손해보험협회 (기획조정부)	책임자 담당자	부장 팀장	방병호 (02-3702-8530) 이현희 (02-3702-8660)
	여신금융협회 (종합기획부)	책임자 담당자	부장 팀장	오승환 (02-2011-0723) 차승광 (02-2011-0694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- 세계 최대 인구의 5대 경제대국*으로, 매년 고속 성장**중이며, '26년 세계 3위 경제 대국 전망(IMF)

* 세계 GDP 순위(IMF, '23년) : 미국, 중국, 독일, 일본, 인도 順, 한국(14위)

** '23년 GDP성장률 : 8.2%, 인도증시 8년 연속 상승(올해 최고치 갱신)

- 인도 경제는 내수시장이 안정적이고, 현 모디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수혜 등으로 직접투자 확대

- (내수 잠재력) 세계 1위 인구, 낮은 중위 연령(29세) 등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중산층 소득 향상이 견조한 소비시장 증가 견인
- (정책 지원) ①제조업 육성, ②외국인 투자 촉진, ③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핵심 아젠다로 추진하고 재정지원 등에 적극적
- (공급망 재편) 지정학적 위험(우크라이나 전쟁, 중동사태)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반사이익 기대
- (주식투자 확대) 인도 주가지수(Nifty50)의 지속 상승, 디지털 금융 발전 및 젊은 중산층의 투자 마인드 변화 등으로 주식투자 비중 확대*

* '23년말 기준 개인 계좌 수는 1.4억개로, '19년말 대비 3.4배 증가

- [직접금융 현황] 인도 증시는 '15년 이후 8년 연속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글로벌 기업 진출 활발

- (기업활동)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 총 70개로 세계 3위 기록
- (IPO) '24년 들어 현지 기업 지분매각과 기업공개(IPO) 규모 사상 최대*

* 지분매각 150억 달러(지난해 대비 150% 증가), IPO 50억 달러(2배 증가)

- (외국인직접투자, FDI) 對인도 FDI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'19~'23년중 6,665억달러가 서비스업, I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입

* (인도) '14년 285.7억 달러 → '22년 523.4억 달러 / (글로벌) 1,405십억 달러 → 1,314십억 달러

참고 2

국내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 현황

- **(진출 현황)** 은행, 금융투자, 보험, 여전 등 12개 국내 금융회사가 25개의 현지점포를 운영 중으로, 미국(60개), 베트남(53개), 중국(47개) 등에 이어 8번째로 많은 점포가 위치('24.3월말 기준)

구 분	회사명
은행(8개)	신한은행(지점 6개), 기업은행(지점 1개), 우리은행(지점 3개), 농협은행(지점 1개), 하나은행(지점 2개), 수출입은행(사무소), 국민은행(지점 1개), 부산은행(사무소)
금투(2개)	미래에셋증권(현지법인), 미래에셋자산운용(현지법인 6개)
보험(1개)	현대해상(사무소)
여전(1개)	현대캐피탈(현지법인)

- **(영업 현황)** 인도 內 현지점포의 총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을 시현 중

* 국내 금융회사 인도 점포 총자산 증가율 : 0.8%→ 8.7% → 13.6% (최근 3년)

** 국내 금융회사 인도 점포 당기순이익 : 62.8→ 90.9 → 88.0 (최근 3년, 백만달러)

인도 현지점포 영업현황

(단위: 백만달러)

구분	'21년말	'22년말(B)	'23년말(A)	증감률((A-B)/B)
총자산	3,441.2	3,738.9	4,249.1	13.6
당기순익	62.8	90.8	88.0	△3.1

- **(추가 진출 계획)** '24.8월말 현재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총 11건의 신규 또는 추가 진출을 계획 중으로

- 최근에는 인도 최대도시인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 이외에도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, 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위치한 첸나이와 푸네 등 인도 전역으로 확장을 추진 중